

# 아프리카 등지는 의료진...선진국으로 스카우트

### 코로나 확산 종사자 부족 현상 저소득 국가 인력난 더 심해져 유럽 등 이민 신속절차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각국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자 고소득 국가들은 아프리카 등 저소득 국가의 의료 전문 인력들을 대거 채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가뜩이나 의료진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는 의

료 인력난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의료 전문 인력들을 위한 이민 신속 절차를 만들었고, 이들의 의료 자격을 인정해주는 절차도 앞당기고 있다.

영국 정부는 부족한 의료 인력을 메우기 위해 2020년 해외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패스트 트랙 절차 '헬스 앤드 케어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비용을 낮추고 절차를 빠르게 하는 혜택을

포함한다.

영국은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간호사 일자리 10개 중 1개가 공석일 만큼 의료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덕분에 영국에서 등록하는 국제 의료 인력은 많이 늘었다.

영국의 보건 서비스 자선단체 '헬스 파운데이션'의 제임스 뷰캔은 2020년 중반 이후 영국에서 일하기 위해 등록하는 국제 간호사 수가 급증했다며 "지난 30년 내 가장 많은 수"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도 코로나19로 급격히 고갈된 의료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수련의 과정을

위한 언어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외국 간호사 자격을 인정하는 절차도 단축했다.

이 밖에도 일본은 임시 노인요양보호사들이 일본에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독일은 외국에서 훈련받은 의사가 보조 의사 자리로 바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외 의료 인력을 채용하지 않던 핀란드도 이들의 이민을 늘리고 있다.

고소득 국가들의 이런 정책은 상대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저소득 국가의 의료진의 대규모 유출을 가져오고 있다.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의 개업의 브라이언 샴파 박사는 최근 영국 이민을 위한 첫 단계인 여학 시험을 시작했다.

샴파 박사가 일하던 지역은 인구 8만명이 거주하지만 의사는 그 혼자였으며 응급 수술을 위해 수술실에서 24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월급은 1,000달러가 안 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최소 1명은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잠비아에서는 거의 1만2,000명당 의사가 1명뿐이라고 NYT는 전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이전부터 해외 의료수출을 위해 대규모로 간호사를 생산하는 나

라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국내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마닐라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일하다 코로나19 임시 병동으로 옮긴 간호사 마이크 노베이다는 "우리 병동에는 15명의 간호사가 있지만 이들 중 절반은 해외에서 일하기 위한 지원서를 갖고 있다"며 "그들은 6개월 후에는 떠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국제 간호사 채용 에이전시 오그레이디 페이턴 인터내셔널의 시너드 카베리 회장은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과 필리핀에서 매달 1,000명의 간호사가 미국에 도착하고 있으며 비자를 받기 위해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대기 중인 외국인 간호사만 1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의료 시설의 수요가 30년 만에 최고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재판

네덜란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익 단체인 '일본명예부채재단'이 제기한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이 24일(현지시간) 헤이그 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단 측 변호사들이 법정에 출석해 있다. 재단은 일본군이 네덜란드령 동티모르를 점령했을 당시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1990년 설립됐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자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PA·ANP·연합뉴스

## 바이든, 유럽 동맹과 러시아 저지 방안 논의

### '우크라 침공시 엄청난 대가' '외교적 해결' 희망도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럽의 지도자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동맹을 다졌다.

일각에서 미국과 유럽 동맹 간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안을 놓고 균열이 생길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대러시아 전열을 정비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80분간 화상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화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도 참여했다.

백악관은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한 계속된 우려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나토 동쪽 진영에 대한 안보 강화는 물론 심각한 경제적 대가와 엄청난

결과를 가할 준비 등 러시아 침공을 저지하려는 공동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EU, 나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의 협력 등 대서양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정상 등은 최근 잇따라 열린 서방과 러시아와의 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공동의 희망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 직후 취재진에 "매우 매우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유럽 지도자들과 완전한 의견일치를 봤다"고 언급했다.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한 서방의 군사적 지원 움직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 NASA, 웹 우주망원경 최종 목적지 도달

### 앞으로 5개월간 장비 미세조정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우주 망원경인 제임스 웹 망원경(JWST)이 지구에서 160만km 떨어진 관측 궤도에 도착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4일(현지시간) 웹 망원경이 계획대로 작동하면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5일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한 달 만이다.

빌 넬슨 NASA 국장은 성명을 내고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지구에서 100만 마일(160만km) 떨어진 웹 망원경 관측 궤도는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제2그랑주점(L2)'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태양에서 바라본다면 지구 뒤편으로 숨은 곳으로, 열에 민감한 웹 망원경이 초저온 상태에서 최적의 관측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택된 궤도다.

웹 망원경은 앞으로 약 5개월에 걸쳐

주경과 부경, 과학 장비 등을 미세조정한다.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웹 망원경은 오는 6월부터 우주 관측에 나설 수 있다.

100억 달러(약 12조 원)가 투입된 웹 망원경은 역대 최강 성능을 바탕으로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1세대 은하를 관측한다. 은하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고 은하의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실체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또 외계행성 대기의 구성 성분을 분석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인지도 파악하는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 중국, 극초음속 항공기용 제트엔진 실험 성공

중국이 극초음속 비행기에 사용하기 위한 신형 제트 엔진 실험 비행을 실시했다.

25일 중국 관영 중앙TV(CCTV)와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칭화대 항천항공학원 산하 연구팀은 전날 미래의 초음속 비행기나 근우주 비행선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신형 제트 엔진 실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 엔진은 칭화대 항천항공학원 산하 연구팀이 개발한 것으로, 실험 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2단계 추진 로켓이 사용됐다.

CCTV 등에 따르면 로켓의 2단계 추진체는 1단계 추진체에서 분리된 뒤 엔진을 예정된 고도에 예정된 속도로 운반했다.

칭화대 연구팀은 "로켓의 2단계 추

진체는 예정된 고도에 엔진을 운반했으며, 요구된 속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엔진 실험 비행이 중국의 우주과학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추진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항공우주 잡지 편집장인 왕야난은 이 엔진이 근우주 공기가 희박한 대기권 상층부에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알뜰한 정보! 행복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